

# 鋼鐵都市

(The Cave of Steel)

아이작·애시모프 작 (Isaac Asimov)

徐光云 訳

(韓國SF作家클럽會長)

지구의 인구가 80억을 넘은 미래, 지구인들은 1천년을 걸쳐서 여기 저기에 <시티>를 건설했다.

시티-그것은 거대한 강철의 도시. 중앙부에는 행정區, 이를 에워싸고 시민들의 거주區. 그 바깥쪽에 각종 제조공장, 수경농장, 이스트근계조공장, 발전소등이 깔려있다.

시티의 변두리 저편에는 황막한 벌판과 누구도 평온한 마음으로 대할 수 없는 알몸의 하늘이 펼쳐져 있을 따름이다. 지구인들은 廣所공포증에 사로잡혀 강철도시로부터 한발짝도 밖으로 나가질 못한다.

이러한 지구에 우주인들이 되돌아 왔다. 우주인-그것은 딴 별들에 이민간 지구인류의 자손들이다. 그들은 로봇트를 구사하여 고도의 문명을 이룩하고 있었다. 우주인들은 <시티>에 인접한 곳에 우주시를 건설했다.

그런데 어느날 뉴욕·시티와 인접한 우주시에서 한사람의 우주인이 살해됐다. 뉴욕경찰의 C-5 급사복형사 이라이저·베일리가 그 사건을 맡게 됐다. 까다로운 사건이었다. 더우기 그는 우주인이 만든 로봇트, R·다니엘·올리보우를 상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R·다니엘·올리보우는 보통 로봇트가 아니었다. 피해자 서튼박사가 만들어낸 유일한 인간과 꼭 닮은 로봇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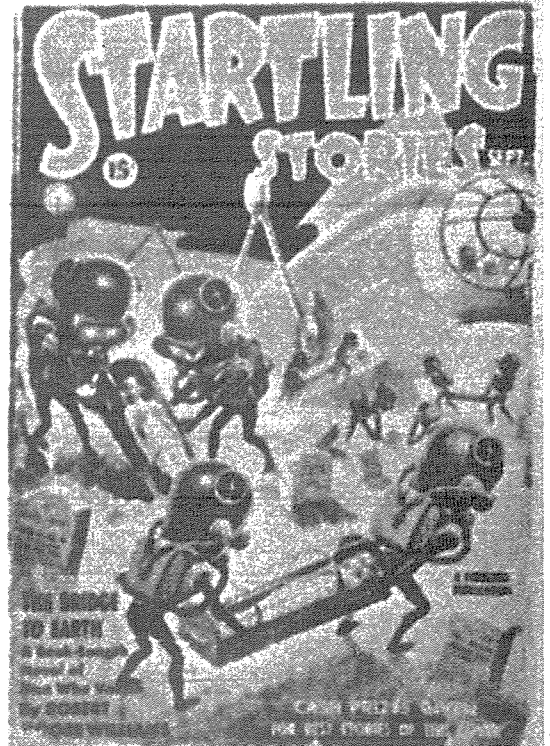
우주인은 지구인과 접촉할 수가 없다.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감기바이러스일지라도 우주인에게 치명적이다. 그래서 지구인들 사이에 끼어서 지구인의 성향을 알아내기 위해 올리보우가 제조된 것이다.

베일리와 올리보우는 우선 베일리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 중도에 구두방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을 목격한다. 지구인들은 사람으로부터 일자리를 빼앗는 로봇트에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날도 구두방의 점원-로봇트에게 트집을 잡고 실령이를 벌리고 있었다.

올리보우는 熱線銃을 꺼내어 폭도들을 진압했다. 로봇트는 <로봇트工學의 3원칙>에 따라 인간에게 害를 끼치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올리보우는 인간에게 熱線銃을 쏜 것이 아닌가.

저녁식사를 마친 후 베일리의 처, 제이시와 아들 벤틀리는 외출을 했다. 한밤중에 외출에서 돌아온 제이시는 놀라운 뉴스를 전했다. 우주인



의 로보트가 시터를 들어와서 경찰의 앞잡이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

구두방의 폭동진압때 올리보우의 정체를 갈파한 놈이 있었던 것 같다.

다음날 그들은 우주시로 갔다.

피해자 서튼박사는 熱線銃으로 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주시에 있는 熱線銃은 최근에 발포된 흔적이 없으며 또한 심리탐사에 의해서도 서튼박사를 죽일만한 동기를 갖고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사건당시 우주시에 있었던 지구인은 뉴욕경찰 본부장 앤더비뿐이었는데 그의 熱線銃은 입구에서 보관중이었고 더우기 그가 서튼박사를 죽일만한 심리상태에 놓여있지 않았음이 판명됐다.

베일리는 생전의 서튼박사의 사진을 보고 박사가 올리보우와 영락없이 닮은 사실을 알자 한 가지 추리를 세웠다.

— 서튼박사는 죽지 않았다는. 로보트인 올리보우자체가 바로 서튼박사임에 틀림없다. 박사가 로보트인척 시늉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처럼 사람과 꼭 닮은 로보트가 있을 수 있으랴. 더우기 올리보우는 폭동진압때 熱線銃을 끄집어내지 않았던가.

그의 추리는 우주인 휘스도르프박사에 의하여 보기 좋게 부정되고 말았다. 박사는 올리보우의 팔을 분해해 보았다. 올리보우는 분명한 로보트였다. 뿐만아니라 폭동때 끄집어낸 熱線銃에는 에너지가 充塡되어 있지 않았다.

그 얼마후에 휘스도르프박사는 우주인이 지구로 돌아온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지구는 인구증가로 파멸 일보전에 놓이고 우주의 여러 행성은 인구감소로 파멸 일보전에 처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인들의 이민을 인정할 순 없다. 지구인들은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로 오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사는 새로운 별의 식민·개척을 제창한다. 지구에 넘쳐있는 사람들과 우주인들의 문명을 구사하여 새식민지를 만들자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베일리는 반론했다. 「지구인들은 우주처럼 드넓은 곳으로는 나갈 수 없다」

「정말로 그럴까」 휘스도르프박사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테면 노상 로보트배척의 폭동을 피하는 회고주의자들은 땅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그 회고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이스트군농장에서 일하는 크로서라는 사나이가 점찍혔다.

베일리는 그 남자를 체포했는데 그는 살인범은 아니었다. 다만 그는 우주로 나가서 새로운 식민지를 만든다는 아이디어에 감명을 받고 있을 뿐이었다.

그 결과 우주시는 살인사건의 수사종결을 통보해 왔다. 범인은 회고주의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야흐로 회고주의자들은 인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식민자이기도 했다.

베일리는 납득하지 않았다. 그 때 마침 경찰 로보트 R·서미가 살해된 사건이 또 일어났다. 베일리와 올리보우는 범인을 찾아내려고 경찰본부장실로 뛰어들어 갔다.

## 작가와 작품

《鋼鐵都市》(1954년)는 애시모프가 SF와 미스터리 연합을 시도하여 성공한 장편. 같은 주인공이 활약하는 작품에 장편과 단편이 하나씩 있다.

《알몸의 태양》은 우주국가 솔라리아가 무대. 솔라리아의 인구는 겨우 2만. 사람 한사람에 대해 로보트가 50대나 봉사하고 있다. 그러한 별에서 인간이 살해됐다. 로보트가 사람을 죽인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로보트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이러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베일리와

올리보우가 초빙된다.

작가 애시모프는 전에 《銀河帝國的 興亡》에서 소개한 것처럼 1920년 소련의 스모렌스크市교외에 페트로비치마을에서 태어나 3살때 온 식구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귀화했다.

소년시절부터 SF에 관심을 갖고 컬럼비아대학을 나온 후 SF작가로 줄곧 활약중인 미국 SF界의제1인자이기도 한다.